



7일 오후 광주 공항에서 전투비행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초음속훈련기 탃? 광주공항 전국 최고 '소음 공항'

## 환경부 조사 87웨클로 4년 연속 1위 불명예 운항횟수 가장 많은 인천공항 62웨클과 대조

국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항은 어디일까. 광주 공항의 소음은 국내 15개 공항을 압도한다. 세계각국 항공기가 셀 수 없이 이·착륙하는, 세계 허브 공항이라는 인천공항도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국내 최고 소음 공항 타이틀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 횟수, 공항 규모, 유동 인구 등에도 달라지지 않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지역민들은 왜, 언제까지 이런 시끄러운 곳을 감수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가 7일 내놓은 '2013년 항공기 소음 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광주·김포·인천 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주변 104개 지점에 설치한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분석한 결과, 광주공항이 평균 소음 87웨클로 가장 높았다. 인천 공항 소음(62웨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어 ▲군산·정주공항 85웨클 ▲대구

공항 82웨클 ▲원주 공항 81웨클 ▲김해공항 78웨클 ▲김포공항 76웨클 등의 순이었다. 가장 조용한 곳은 59웨클을 기록한 양양공항 주변지역이었다. 광주 공항이 소음 공해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 83웨클 ▲2011년 87웨클 ▲2012년 87웨클을 기록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항공기 소음 높은 곳으로 파악됐다. 광주공항 인근 송대동에 설치된 측정망의 경우 소음이 93웨클까지 치솟아 전국 104개 측정망 가운데 가장 소음이 심각한 지점으로 남아있다. 나머지 6곳의 소음 수치도 모두 항공기 소음 한도(75 웨클)를 훌쩍 뛰어넘는다.

공교롭게도 광주를 포함 소음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곳은 모두 공군비행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공항이다. 전국 공항 가운데 ▲광주 1만1750회(분기) ▲청주 1만481회 ▲군산 1564회 ▲대구 9516회 ▲원주 742회 등 소음 상위 5곳의 공항이 모두 공군비행장과 함께 운영되면서 운항 횟수가 적은데도, ▲인천 29만5204회 ▲김포 14만5074회 ▲제주 14만267회 ▲김해 8만4528회 등 운항 횟수가 많은 공항에 비해 소음이 높은 만큼 군 비행장이 소음을 끌어올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광주공항이 유독 시끄러운 공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데는 다른 민·군 겸용 공항에 비해 군 항공기 운항 횟수가

많은 점, 엄청난 굉음을 내는 초음속 훈련기 T-50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는 점도 소음 유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군은 광주공항 주변에서 150m~1km 사이 초저고도에서 항공기의 최대성능을 보여주는 고난도 비행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잦은 저고도 훈련을 수시로 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 공항이 함께 운영되는 광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소음 단위를 나타내는 웨클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항공기 측정망이 광주의 경우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돼 소음 피해가 유난히 큰 것으로 분석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 경찰청 근시안적 인사... 부장제 도입 6개월만에 바뀌

## 광주·전남경찰청 경무관 2명 줄어 업무 공백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경무관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경찰관 증원 계획 및 업무 효율화 등을 내걸고 올해 초 단행했던 인사 방안이 6개월 만에 바뀌면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2부장인 이철구(49·경대 4기) 경무관이 지난 4일자로 일본 주재관으로 발령났다. 지난 1월 경무관 48명의 정기 인사를 단행한 지 6개월만으로, 수사·경비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 업무

를 총괄하는 2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광주청 민갑룡(49·경대 4기) 1부장도 지난 5월 경찰청 국민안전혁신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경무·정보화장비·정보·보안 등 치안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텅 비어있는 형편이다. 경찰청이 애초 청장과 과장 사이의 직급인 '부장'제를 도입하면서 밝혔던 치안 지원·민생치안 업무를 분담, 업무 효율을 높여자는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경찰청은 그나마 경무관급 정기 인사

가 매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애초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던 방침을 갑작스럽게 변경, 전남청에 적용시키면서 전남경찰이 기존 차장실을 1·2 부장제로 바꾸는 등 부산을 떨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올해 초 도입한 경무관 계급인 차장 직제 대신, 같은 계급의 1·2 부장제가 효율적 치안 정책 수행보다는 고위 간부 자리 보존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찰, 해경 일부 조직 흡수 해사국 신설 유력

해양경찰이 해제됨에 따라 해경 수사·정보 분야를 넘겨받는 경찰이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상한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경 수사·정보 분야 흡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부적으로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해양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분산해 경찰의 정보, 수사국에 개별적으로 흡수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해사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국장은 경무관급이 말고, 해사국이 설치되면 산하에는 해양정보과, 해양수사과 등 기능별로 과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해경 수사·정보 업무 중 해상에서 초동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경이 일차적으로 한 후 경찰에 넘기게 할지, 경찰이 직접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살인 사건과 관련, 검찰과 별도로 뇌물 의혹 사건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가 송씨의 유족으로부터 송씨가 작성한 뇌물 장부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내연남 만나려 세 딸 버린 비정한 엄마

내연남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세 딸을 버린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은 7일 이혼한 남편 부모 집 앞에 세 자녀를 버린 김현(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모(여·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고씨와 함께 아이들을 버린 내연남 김모(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씨 내연남 김모(2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전 남편 박모(27)씨 할머니 아파트 옆 현관에 여덟살·네살·두살배기 딸을 남겨놓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세 아이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안심시킨 뒤 그대로 내연남인 김씨가 사는 광주로 내려와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후 4개월 간 자신 명의의 휴대폰·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경찰에서 "전 남편이 직장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이혼을 했다"면서 "지금 남편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다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3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던 아이들은 때마침 밖으로 나온 박씨 할머니에게 발견, 아버지 손에 남겨졌다. 경찰에서 큰딸 박양은 "엄마랑 아저씨가 곧 돌아온다고 동생들과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할 형편이 못 돼 아이들을 아동보호기관에 맡겼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80대 집주인 등에 붙잡힌 30대 도둑

○...한 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탈취한 30대 도둑이 50대 부부와 80대 집주인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쳐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문모(54)씨 부부의 2층 집에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온 뒤 추모(34)씨는 문서 부부와 다툼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1층 집주인 박모(80)씨 등 3명의 힘에 굴복, 집에서 20m도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추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관아기 위해 10분 이상 주먹을 마구휘둘렀지만 결국 집주인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면서 "때 맞아 가면서 끝까지 강도를 붙잡은 문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엠펙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0만 발생)

**매가 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

**신축원룸매매 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12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 500만**  
(1년6000만 수익발생)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상가매매 · 오피스텔매매(수익성)**

-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완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공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용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원천역 1번 출구 2분 |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울수리 전제제물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거주가능) |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 할인가 → 1억5천(용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품목서 무료**

32인치TV, 세, 냉, 에, 인터넷, 유선 불박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는 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

**상가임대(수완지구, 북구)**

- ▶수완지구 3층 25평 임대(한솔빌딩)신한은행 뒷, 모아A 상가앞 보1천50만(시비없음)
- ▶수완지구 3층 62평(엘스타)롯데마트 옆, 해남공단 4번 쪽보2천 월120(분할가능)
- ▶수완지구 1층 18평(한도빌딩)대방 5차 APT후문앞보2천 월120만(시비없음)
- ▶북구 우산동 1층 80평(구호전사거리 무등장레스토랑) 보3천 월150만(식당, 카페, 당구장, 호프적합)
- ▶나주 삼영동 학원1층(70평)2층(60평)-상담후결정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로번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정로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11억, 최저4억9천7, 충정로5가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가41억,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802㎡) 감가26억, 최저14억8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주 유 소/공장**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광도로
- 영암군 신흥동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정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정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80만) 매매가능

---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십시오**

상가, 대지, 근린시설 주택, APT, 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